

“역사와 상상 엮어 흥미로운 서사 완성”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강대선 작가, 장편 2권 발간

대조영·금속활자본 직지 다른

‘대륙의 천검’·‘우주 일화’

“문학은 내 안의 상처 치유 과정”



강대선 시인

“어릴 적에 무협지를 좋아했는데 역사와 상상력을 엮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강대선 시인, 아니 소설가는 이야기에 대해 목 말라 있는 듯 했다. 시를 쓰는 시인이면서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문학의 출발은 시였지만, 지금은 소설과 시조 등 장르의 벽을 넘나들며 마치 ‘무협지의 협객처럼’ 자신만의 창작의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다.

반듯한 교사, 성실한 공무원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그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밤에는 글을 쓰는 작가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유해보이는 인상 이면에 깃든 문학에 대한 열정, 자신에 대한 엄격성은 그가 지닌 최고의 ‘무기’이자 ‘문재(文才)’이다.

이번에 그가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다른 소설 ‘우주일화’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을 다른 ‘대륙의 천검’을 펴냈다. 상상인 출판에서 전자책으로 출간된 2권의 장편은 우리의 역사를 모티브로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다. ‘우주일화’는 학생들에게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가르치면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마침 2020년 광주에서 적지문학상을 공모해서 도전했는데 대상

작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작품은 금속활자본을 연구하며 지키는 주인공의 험난한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피 념새를 쫓기는 환이 흥국사를 찾아와 머리를 깎고 우뚝스님은 글자를 새기는 각수(刻手)로 그를 인도한다.

훌륭한 각수가 되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환은 두 개의 금속활자본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글자를 연구하다 글자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환은 글자 속에 담긴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더 많은 글자를 찾아 나선다.

또 다른 소설 ‘대륙의 천검’은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이 아버지 결결중상과 만주 지역을 떠돌며 고구려를 재건하기 위한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대조영과 결결중상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거란족의 영토로 들어가면서, 파란의 사건들과 엮인다.

두 작품을 통해 각 작가는 어떤 불굴의 정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우주일화’는 글자를 새기는 각수(刻手)인 환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각수들의 노력이 흥미점음에까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 또한 역경에 굴하지 않

는 강한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고 떠돌지만 절망에서도 굴하지 않는 대조영을 통해 ‘의지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죠.”

그는 시와 소설 두 분야를 창작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소설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쓰고, 시는 틈틈이 쓴다. “소설과 다르게 시는 걷다가도 오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오고, 책을 읽다가도 온다”는 것이다. 또한 “그때그때 받아적기를 하지만 시가 안 올 때는 제가 찾아가기도 한다”며 웃었다.

글이 안 써진다고 ‘있는 품, 없는 품 다 잡는’ 무늬만 문인들이 적잖은 세상에서 그의 성실한 글쓰기는 본받을 만하다. 창작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강 교사는 “어느 한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확신했다면 그 분야를 팟을 텐데 그런 확신이 없었다”며 “확신을 갖기 위해 다른 분야에 도전했던 것인데 끝만 여러 개 찢지 정작 끝다운 글을 파지 못한 느낌이 든다”며 자신을 낮췄다.

그럼에도 시와 소설은 분명히 다른 장르인데 어떻게 하면 두 분야를 아우를 수 있을까.

“시는 허물을 벗는 뱀처럼 매년 새로움을 위해 언어의 허물을 벗는 과정이라면 소설은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과 시는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인간의 모습을 담는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는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낼 계획이다. 인문학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싶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자 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전에 알지 못했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 혹은 인류의 문제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상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고민을 하는 거죠.”

한편 강 시인은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와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기슭에서 핏빛 꽃이’ 등과 소설집 ‘퍼즐’ 등을 출간했다. 한국해양문학상, 한국가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오니소스 로봇’ 광주서 만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백남준 오마주... 24~25일 ACC서 공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은 용인시를 넘어 경기도를 상징하는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가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영상을 바라보는 ‘TV 부처’, 24개의 컬러 모니터 앞에 24개의 여항을 설치한 ‘TV 물고기’ 등은 시대를 앞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작품들이다.

24일(오후 7시30분), 25일(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융복합 미디어콘서트 ‘디오니소스 로봇’은 백남준에 대한 오마주가 담긴 곡이다.

이번 공연은 전통악기와 타악기, 전자음향과 사람의 소리를 매개로 현대적인 음향을 창출한다.

지난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위촉받아 초연했으며, 바르샤바 크로스컬처 페스티벌 폐막 공연에서도 선보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럽 7개국 10회 공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ACC재단 조정호 문화예술사업팀장은 “경기시

나위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시나위의 창작정신’이 담긴 곡”이라며 “음악에 무용, 일러스트가 얹고 레이드된 미디어 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난다”고 말했다. 또한 “추상적인 내용이 관객들에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는 무(악)의 혁신적인 ‘포스트모던 극판’을 선사할 것”이라며 “최고의 창·제작진들이 만나 펼치는 판타지 무대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발레를 전공한 모지민은 다양한 장르를 매개로 예술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이번 공연에서는 디오니소스가 육화한 존재를 표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시바이올리니스트 KoN과 프렐류드·고희안 트리오·트리오 클로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기타 한웅원, 월간 재즈피플 라이징스타 기타 김수유가 참여한다.

관람료는 전석 3만5000원이며 예매는 ACC 누리집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년만에 신작 조정래 “인간 탐욕 그려”

‘황금종이’ 출간 간담회... “인간 본성·존재의 문제 다룰 것”

“민족 역사의 현실과 모순, 갈등을 기록한 1·2기 작품에서 떠나 인간의 실존과 현실,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등단 53주년을 맞은 조정래(80·사진) 작가가 4년 만의 신작인 ‘황금종이’(전 2권, 해냄)를 출간하며 작품 세계 3기로 진입했다. 2019년 장편 ‘천년의 질문’ 이후 그는 매일 4~5시간씩 원고지에 써 내려가며 이 작품 집필에 매달렸다.

조 작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전반기가 단편과 중편을 쓴 시기라면, 중반기는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이 포함된다”며 “후반기에는 이 작품과 다음 작품까지 인간 본성과 존재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천착하고자 그는 인간 삶의 수단임에도 생살여탈권을 쥐게 된 ‘돈’에 주목했다. 그는 돈은 가난하던 대학 시절부터 평생을 생각해온 문제라고 했다. 제목의 ‘황금종이’는 돈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조 작가는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중 맨 앞에 나오는 재물욕이 인간의 실존적인 실재를 밝히는 열쇠라고 생각했다”며 “인간사 비극의 80~90%가 돈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돈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지배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서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소설로 쓰고자 했다”

고 설명했다.

축량받는 신임 검사였으나 재벌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법복을 벗은 이태하 변호사가 돈에 얽힌 각종 사건을 맡으며 전개되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다.

/연합뉴스

중장년 여성 일과 삶 통해 본 일자리 발굴

광주여성재단, 오늘 ‘젠더포럼 릴레이 토크콘서트’

여성, 가족, 삶에 대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포럼이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래·재단) 협력 기구 광주젠더포럼에 소속된 6개 분과 중 총 5개 분과가 현장형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광주젠더포럼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재단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22일 오후 4시 가족돌봄분과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 현황 및 틈새사업 방향성 논의’라는 주제로, 여성일자리분과는 23일 오후 4시 ‘중장년여성들의 워드라이프-중장년여성들의 일과 삶을 통해 본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는 주제로 중장년 여성 일자리발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외 문화다양성분과는 24일 오후 5시 ‘외국인 지원정책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이해’라는 내용으

로 이주민, 성평등 지원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단 3층 북카페(은새암)에서 진행.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성주류화분과가 ‘광주성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을 5개구 의원들과 함께 살펴봤다. 같은 날 여성인권분과도 ‘젠더폭력 예방교육 방향성 논의’를 주제로 안전한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이미영 교류협력팀장은 “2012년 발족해 500여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광주젠더포럼’은 올해 의제별 6개분과로 개편한 만큼, 더 심도 깊은 의제발굴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